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조 은 영[†]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parentification)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1에서는 27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화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가계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그들의 인간관계 보고서를 통해 부모화 수준에 따라 충성심 및 자아분화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3에서는 이들 중 62명을 상담하여 부모화된 자녀가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일반 가정의 자녀에게서보다 가족원의 질병, 사망, 부모의 갈등 및 별거, 이혼 그리고 재혼을 경험한 자녀에게서 부모화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충성심이 높고, 자아분화 수준은 낮았으며, 가족의 삼각화에 개입하는 경향성이 더 강했다. 또한, 이들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함으로써 가족 내 갈등에 더 많이 개입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강박적 배려자, 책임자 및 지도자, 부모 욕구의 대리자, 보호자 및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된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차원에서의 심리치료가 필요함을 함축한다.

주요어 : 부모화, 충성심, 자아분화, 삼각화, 가족갈등

[†] 교신저자 : 조 은 영,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E-mail : to_be21@hanmail.net, tjung@cau.ac.kr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부모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자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으로 생각한다. 특히 유교 문화권의 한국 사회는 더욱더 그러한데, 유교적 가치관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강조하여, 부모에게 보은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르심에 즉시 응하고,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을 중시해 왔다(김경동, 1964; 최재석, 1982).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는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를 철든 아이로 보고(김효창, 손영미와 박정열, 2002), 폐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를 바람직한 아이로 보면서 아이에게 좋은 성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정태연, 최상진과 김효창, 2002).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바람직한 아동을 유교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아동양육을 통해 일찍부터 아동의 성인화를 강조하고 있다(정태연 등, 2002).

이처럼 부모를 배려하여 보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은 이타적인 행동과 함께 매우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적정 수준의 배려는 그 자체로 적응적일뿐 아니라 내면적 갈등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도외시한 강박적 배려심이다. 강박적 배려심은 비록 단기적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그러나 일찍이 Bowlby(1973)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s)”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 Boszormenyi- Nagy & Spark, 1973) -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킨 자녀 - 혹은 부모화(parentification) - 부모화된 자녀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어 왜곡된 상태 - 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동일시적 차원을 넘어 동일체(oneness)적 관계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최상진, 김혜숙과 유승엽, 1994) 측은지정을 주로 한 감정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유승엽과 장민호, 1998), 한국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식의 부모화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의 부모화된 자녀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화(Parentification)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화는 어린 시기부터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자식 간의 역할전이를 일컫는다. 이러한 부모화는 어린 시절 수용, 이해 및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성인이 자녀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Boszormenyi- Nagy & Spark, 1973). 또한, 부모화는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부모가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 아이를 과대평가하고 과도

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에 부모화가 생길 수 있다(Jurkovic, Jesse, & Goglia, 1991). 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픈 부모를 돌보면서 부모화가 발달하기도 하는데, 아픈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강한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수용하기도 한다(Bowlby, 1980). 부모화된 자녀는 도구적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을 책임짐으로써, 그들의 애착 대상이 되기 쉽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가 보살피는 대상은 형제자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가족의 역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urkovic, Thirkeld와 Morrel (2001)은 부모화를 적응적인 부모화와 파괴적인 부모화로 구분했는데, 파괴적인 부모화는 보살핌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지만 하여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

즉,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지 그러한 배려를 받는 입장에 있지 못한다(Bowlby, 1973). 궁극적으로, 이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Jurkovic, 1997; Jurkovic, et al., 2001),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Chase, 1999).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우울과 자기 비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경험하고(Byng-Hall, 2002),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그리고 정신적 분열(Splitting)을 보이기도 한다(Wells & Jones, 2000).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고(Byng-Hall, 2002), 초기 애착 및 경계선 혼란(Chase, 1999)과 같은 행동

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부모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서(Cole & Woolger, 1989),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여를 보이며(Campbell, Adams & Dobson, 1984;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낮은 수준의 대학생활 적응력(Berman & Sperling, 1991)을 보인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녀에게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자녀는 불안해서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거나 몰입해야 함으로써 실존적 불안, 허무감,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urkovic, et al., 1991).

이러한 부모화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가족체계모형(Turnbull, Summers & Brontherson, 1984), 생태학적 모형(Bronfenbrenner, 1979), 그리고 교류모텔(Sameroff & Chandler, 1975)처럼,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존재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갈등 및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기존 연구들은 가족갈등 및 스트레스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ath & Gumley, 1987; Jurkovic, et al., 2001; Lamorey, 1999). 예를 들면,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 간 부모화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더 부정적으로 부모화되는 경향이 있었다(Jurkovic et al., 2001).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 알콜 중독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의 특정 자녀가 부모로서 혹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떠맡게 됨으로써 세대 간 경계선이 왜곡되었다(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way, 1992).

가족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이에 적응하

기 위해 부모-자녀 간 역할이나 형제자매 간의 역할이 재정립된다. 이러한 위기에 적응하는 동안 형제자매들은 어쩌면 가족 위기 조절 기술을 배우고, 가족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책임감 및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역동이 특정 자녀에게 성인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극단적인 무력감, 과도한 충성심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rber & Jenne, 1963; Gath, 1973). 여기에 부모화된 자녀를 연구해야 할 상담 및 치료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체계: 자아분화와 삼각화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는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의 구분 정도를 그리고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구분 정도를 일컫는다(김혜숙, 2002). 모자공생관계는 어머니와 자식 간 지나치게 강한 애착 때문에 서로 구분 없이 동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Bowen(1978)은 이러한 관계를 “미분화된 자아 융합체(undifferentiated ego mass)”라고 명명하였다(김혜숙, 2002에서 재인용). 한편, 삼각화는 개념적으로 가족 내 두 구성원 간의 불안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한 명의 가족원을 개입시켜 세 사람 간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적으로는 삼각화에 두 부모와 자식이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개입과 침투를 수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분화되지 않은 가족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투사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모의 문제가 자녀

에게 투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Bowen, 1978). 이러한 가족 구조에서 자녀는 한쪽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된’ 상태에 있으므로, 부모의 불안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의 불안을 떠안는 것은 실상 부모의 불안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Bowen(1976)은 삼각관계를 최소의 안정적 관계체계라고 언급하면서 삼각관계의 적응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기능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의도적으로 끊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삼각관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Minuchin, 1974).

일반적으로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구성원들은 가족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Black, 1979; Copans, 1989),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족 내 영웅, 능력이 혹은 희생양이 발생한다. 몇몇 구조적 입장의 가족체계이론가(Boszormenyi-Nagy & Spark, 1973; Minuchin, 1974)들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간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부 간의 갈등과 위기가 자식에게 전이되는 경우 삼각관계가 형성되는데, 상황에 따라 약자는 자녀와 연합을 하여 강자에 맞서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는 약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삼각구조 안에 개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가족구성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덜 분화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모의 긴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자 부적절한 시도를 하는 자녀가 삼각관계에 개입되기 쉽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많은 자녀나 부모 간의 불안한 관계를 참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로 삼각관계에 일찍부터 개입하게 된다(Minuchin, 1974). 그래서

일찍부터 삼각관계에 개입한 자녀는 부모의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모 간의 역동에 개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써 애착대상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갖는다(Chase, 1999). 심지어 부모 중 취약한 한 쪽은 배우자와 같은 수준의 친밀성을 자녀에게 기대하여, 삼각화에 개입한 자녀는 부모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Jacobvitz & Sroufe, 1987). 그러므로 부모화된 자녀는 일찍부터 삼각관계에 개입되기 쉬우며 부부간 갈등 및 스트레스를 함께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질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부모화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가계도 분석을 통해 부모화가 가족갈등이나 스트레스와 갖는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했다(연구 1). 또한, 이들이 직접 완성한 인간관계 보고서(연구 2) 및 상담(연구 3)을 통해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부모화된 자녀들의 충성심, 자아분화 수준, 그리고 가족 내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화 특성은 주로 어린 나이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어릴 때뿐 아니라 성인기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화 특성은 어린 아동을 비롯하여 청소년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반면,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율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시기이다(Erikson, 1968). 그런데,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익숙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의존을 더욱 돈독히 하여(Olson & Gariti, 1993), 부모로부터의 자아분화를 지연시키고 자율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Jurkovic et al., 2001).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 을 대상으로 부모화를 연구하는 것은 청년기의 발달적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 1. 부모화에 대한 양적 측정 및 가계도 분석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70명(남: 97명, 여: 173명)이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20.74세였다.

자료수집

부모화된 자녀를 확인하기 위해 Sessions와 Jurkovic(1986)의 부모화 성인용 척도(PQ-A Parentified children)를 연구자들이 번역한 후,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하고 심리학 석사를 한 재미교도와 수정작업의 절차를 거쳐 한국어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 문항으로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며 역코딩 문항을 역점수화한 다음 예라고 답한 문항 수의 합이 부모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α)는 .68이었다. 또

한, 참가자 전원에게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알려준 후 자신의 가계도를 그려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가계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가족원의 위상, 성별, 연령, 서열 및 현재 동거여부, 관계 성격(친밀, 갈등, 별거, 이혼, 재혼, 소원, 융합)을 담고 있다.

결 과

연구 1에서는 전체 집단을 부모화 정도에 따라 고, 중, 저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Jurkovic et. al., 2001) 중간 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부모화를 좋다 나쁘다 식의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적절한 부모화는 건강한 수준의 타인배려 및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적응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너무 심하게 부모화된 경우 뿐 아니라 전혀 부모화되지 않은 자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부모화의 수준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에 연구 1에서는 부모화 점수 분포에서 절단점수(cut-off)를 상위 30%, 중간 40%, 그리고 하위 30%로 정하고 차례로 부모화 고집단, 중집단,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참가자

들의 부모화 점수는 42점 만점에 21.81($SD = 5.03$)이었으며, 부모화 고집단은 모두 76(28.1%)명이었고 그들의 평균 부모화 점수는 27.84($SD = 2.84$)점이었다. 부모화 중집단은 107(39.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평균 부모화 점수는 22.07($SD = 1.39$)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모화 저집단은 모두 87(32.2%)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부모화 점수는 16.23($SD = 2.41$)점이었다.

또한, 가계도를 성의 없이 그려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6명의 학생을 제외한 264(남: 96, 여: 168)명의 가계도를 분석하였다. 264명 중에서 부모화 고집단은 73(27.7%)명, 중집단은 106(40.2%)명, 저집단은 85(32.2%)명이었다. 가계도 분석은 가족의 갈등 유무에 따라 일반 가족과 특수가족으로 분류하였다. 특수 가족에는 가족원 중 한 명 이상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 부모가 현재 갈등상태이거나 융합관계인 가정, 부모가 별거 및 이혼한 가정, 재혼가정을 포함시켰으며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을 일반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족원 중 한 명 이상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가족의 학생 11명(4.2%), 부모의 갈등이나 융합 관계를 보고한 49명의 학생(18.6%), 부모가 별거나 이혼한 가정의 자녀 17명(6.3%),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혼가정의 자녀 5명(1.8%)이 특수가족으로 분류

표 1. 부모화 수준과 가족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빈도분포 단위: 빈도 ()는 백분율

부모화 수준 가족유형	고	중	저	전체
일반	43(16.29)	72(27.27)	67(25.38)	182(68.94)
특수	30(11.36)	34(12.88)	18(6.82)	82(31.06)
전체	73(27.65)	106(40.15)	85(32.20)	264(100.0)

되어, 총 82명(31.1%)이 포함되었다. 가족유형에 따라 부모화된 자녀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 = 7.36, p < .05$). 그 결과,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부모화 고집단의 비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더 낮았는데, 질병, 사망, 부모별거, 이혼, 갈등 등의 가족 스트레스가 많은 특수가족에서는 부모화 고집단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구 2. 보고서 분석을 통한 부모화 연구

방 법

연구대상

연구 1에 참가한 270명 중 198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고, 최종적으로 3회의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학생들은 189명이었다. 이중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8명의 학생을 제외한 181(남:64, 여:117)명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181명중 부모화 고집단은 52(28.7%)명, 중집단은 74(40.9%)명, 저집단은 55(30.4%)명이었다.

자료수집

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나의 인간관계 네트워크’(1차), ‘나의 인간관계 특성’(2차), ‘나의 가족 및 발달사’(3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매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

이나 질문을 적은 후 돌려주었으며 다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전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두 번째 보고서의 주제는 첫 번째 보고서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세 번째 보고서의 구체적 질문 역시 제 2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3회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이유는 첫째, 각 보고서마다 연구자가 학생들과 서면으로나마 라포를 형성하고 친밀하고 신뢰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반임상적 질문지 형식으로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문지를 구성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제 1 보고서

‘나의 인간관계 네트워크’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대인관계망을 그려보고 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1주일 후 수집한 제 1보고서를 검토한 후 막연하고 피상적인 기술을 한 학생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혹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써 넣고, 구체적인 문제를 기록한 학생들에게는 ‘마음이 아팠겠다!’, ‘그 마음 공감이 된다!’ 등의 공감 표현으로 위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혹은 ‘그 때 느낌이 어떠했느냐?’ 등의 질문을 하였다. 또한 ‘타인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렵다’, 혹은 ‘나는 너무 이기적이다’와 같이 관계를 스스로 평가한 학생들에게는 ‘타인 앞에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자책하는 것 같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등 통찰적으로 되묻기도 하고, 더불어 ‘힘이 느껴지네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등의 힘을 실어주는 피드백을 글로 주었다.

제 2보고서

제 1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측면에서 자신들의 대인관계 특성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즉,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어머니와 자신과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자신과 형제와의 관계’, ‘자신과 친구와의 관계’, 기타 ‘일반적인 나의 인간관계’로 구분하여 자신의 대인관계 특성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패턴 및 어려움’과 ‘갈등 발생 시 대처 행동’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 2 보고서는 제 1보고서를 다시 돌려주면서 본 연구자가 피드백으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하도록 요청했다.

제 2보고서의 가장 큰 목적은 1보고서를 보완하여 보다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 내어 유의미한 대인관계에서 그들이 자주 보이는 패턴이 무엇이며,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각 개인은 대인관계 하위체계별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각 하위체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주일 후 수집된 제 2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 1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자의 의견을 기록하였는데 제 2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제 1보고서에 기술한 본 연구자의 피드백으로 위로받은 학생들이 제 1보고서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보였기 때문이다. 제 2보고서를 돌려받은 학생들은 제 3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 3보고서

제 2보고서가 횡단적 자기 대인관계 분석이

었다면 제 3 보고서는 종단적 자기 분석으로, 자신의 발달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면담을 실시하면서 아버지 에 대한 질문(아버지의 성격, 행동, 출생 및 조부모님과의 관계), 어머니에 대한 질문(어머니의 성격, 행동, 출생 및 외조부모님과의 관계), 본인의 출생, 성장 과정 등에 대한 질문에 자율형식으로 기술하였다. 학생들은 가족원과의 대화 및 면담을 통해 각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한 후 제 3보고서에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 부딪치는 문제도 함께 기술하였다. 보고서 3을 제출할 때는 보고서 1과 2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결 과

보고서 분석은 먼저, 전체 참가자들을 연구 1의 세 부모화 집단으로 구분한 후 보고서의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여 각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보고서 내용은 단답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답한 내용 중에서 전체 보고서에서 일관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난 답을 선별한 후 이를 의미나 내용면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 상위범주 개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과는 이러한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은 분석 방법을 숙지한 심리학 전공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3명의 학생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보고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한 후 상호 비교하여 합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전반적 대인관계 특성

1차 보고서의 내용을 관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관계 만큼이나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 이성 관계, 학교 선후배와의 관계 및 종교 단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일부 피험자들에게서 나타났다. 1 보고서의 특징은 가족관계에서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나를 많이 이해해주셨다.”, “우리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정말 남다르시다”, “엄마와 난 친구 같은 사이다”등 주로 긍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많지 않았으나 간혹 표현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 “불편한 사이”라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정도였다. 친구관계에서는 ‘편한 사이’, ‘불편한 사이’, ‘괴상적인 관계’로 구분되었으며 ‘늑어서 서로 벽에 뚫칠하는 모습 보면서도 얼굴 붉히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친구’, ‘버림받거나 배신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없는 친구’를 이상적인 친구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관계에서는 그 밖에도 ‘대학에 와서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친구관계가 계산적이다’, ‘끌려 다니기만 한다.’ ‘이 친구라면 뭐든 해 줄 수 있다’ 등의 내용들이 있었다. 종교 및 단체에서의 관계도 주로 친구들과의 관계였으며 내용은 친구관계와 비슷했다. 이성 관계는 ‘편하다’, ‘나를 잘 이해해준다’, ‘믿을만하다’ 등의 표현이 많았다.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를 참가자들이 되돌려 받은 1주일 후에 회수되었다. 2차보고서는 양적으로 5-6페이지 정도 더 늘었으며 질적으로는 1보고서에서는 밝히기 어려웠던 부분들, 가족의 상처, 부모님의 불화 등 훨씬 역동적인 관계가 드러났다. 가족관계는 ‘화목’과 ‘갈등’이라는 기본 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친

구관계는 ‘친하다, 통한다.’와 ‘괴상적이다, 계산적이다’라는 질적 틀과 ‘친구가 많다, 적다’와 같은 양적 틀로 전개되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호소한 것은 가족관계였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이었다. 부모와의 갈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났는데, 상대방과 나하교의 갈등과 특징인이 가족전체 혹은 특정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갈등은 ‘아버지는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와 같이 나와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갈등이 표현되었으며 또한 한편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한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어머니와 우리를 괴롭힌다.’와 같이 한 개인의 성향이 가족 전체와 부딪치는 갈등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자신의 발달사에 관한 3차 보고서는 2차 보고서를 참가자들이 되돌려 받은 1주일 후에 회수되었다. 3차 보고서는 양적으로 2차보고서보다 3-4페이지 정도 더 늘었으며 부모님이 만난 배경, 본인의 출생에 얽힌 사연,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대인관계, 본인의 성장과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면담 과정 중에 느꼈던 힘들었던 점,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느낀 점들이 표현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의 성격과 양육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암묵적인 성격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고 나타난 것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이었다. 즉, ‘난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성격을 관계특성에 개입시키고 있

있으며, ‘나는 너무 못된 딸인 것 같다’, ‘난 너무 소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착한 딸에 대한 조건을 전제로 한 평가와 소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둔 자책을 관계 특성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충성심, 자아분화에 관련된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충성심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참가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표 2),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성공하기,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드리기, 경

제적으로 도움 되기, 나 잘살기 등으로 응답했으며, 어머니를 위해서는 그 밖에도 집안일 돕기가 있었다. 이 중 아버지를 위해서는 성공하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어머니를 위해서는 정신적 지지가 가장 높은 반응빈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든 부모화 집단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한국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서로 다른 차원의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화 저집단보다는 고집단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화 고집단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부모화 수준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해 주고 싶은 것. 단위: 빈도 ()는 백분율

응답내용	대상 부모화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		
		고(%)	중(%)	저(%)	고(%)	중(%)	저(%)
성공		20(40.0)	23(33.8)	29(58.0)	11(22.5)	15(21.1)	12(25.0)
-성공하기		15	6	7	4	5	2
-자랑스러운 자식 되기		2	13	11	3	6	2
-학업충실		3	4	11	4	4	8
정서적 지지		12(24.0)	18(26.5)	6(12.0)	17(34.7)	23(32.4)	12(25.0)
-대화		6	6	0	6	5	5
-기쁘게 하기 (위로)		4	7	5	9	13	5
-함께 보내기(취미)		2	5	1	2	5	2
경제적 도움 되기		7(14.0)	15(22.0)	7(14.0)	8(16.3)	12(16.9)	10(20.8)
나 잘살기		5(10.0)	7(10.3)	6(12.0)	0(0)	6(8.5)	4(8.3)
선물(차, 옷)		3(6.0)	0(0.0)	0(0.0)	5(10.2)	1(1.4)	1(2.9)
기타		3(6.0)	5(7.4)	2(4.0)	3(6.1)	2(2.8)	3(6.3)
집안일 돕기					5(10.2)	12(16.9)	6(12.5)
전체		50	68	50	49	71	48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자녀관계

부모화 집단에 따라 자녀가 아버지 및 어머니와 맺는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3). 부모화 집단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 보면, 부모화 고집단 및 중집단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화 저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나, 부모화 된 자녀일수록 아버지와 어려운 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부모화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아버지에 대해 ‘적대적이다’와 ‘안쓰럽다’라고 보는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모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부모화 저집단에서 많이 나타나 부

표 3. 부모화 수준별 자녀가 갖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단위: 빈도 (눈 백분율)

응답내용	대상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화	고(%)	중(%)	저(%)	전체	고(%)	중(%)	저(%)	전체
존경			8(16.0)	10(13.7)	9(16.4)	27(15.2)	0(0.0)	0(0.0)	0(0.0)	0(0)
어려움			11(22.0)	18(24.7)	5(9.1)	34(19.1)	3(5.8)	2(2.8)	0(0.0)	5(2.8)
어려움			3	4	5		0	0	0	
불편			4	4	0		0	0	0	
서먹/거리감			4	10	0		3	2	0	
친근함			10(20.0)	15(20.5)	12(21.8)	37(20.8)	29(55.8)	45(63.4)	27(49.1)	101(56.7)
친구 같은			7	3	4		7	12	7	
편한			3	4	0		5	8	16	
가까운			0	2	5		9	23	0	
좋아하는			0	6	3		8	2	4	
적대적			11(22.0)	11(15.1)	3(5.4)	25(14.0)	7(13.5)	5(7.0)	4(7.3)	16(9.0)
미워하는			5	2	3		5	2	0	
같등적인			2	2	0		2	0	0	
무서운			4	7	0		0	3	4	
안쓰러움			3(6.0)	4(5.5)	0(0.0)	7(3.9)	5(9.6)	8(11.3)	5(9.1)	18(10.1)
고생하는			3	2	0		2	0	0	
걱정되는			0	2	0		3	8	5	
버팀목			2(4.0)	1(1.4)	10(18.1)	13(7.3)	0(0.0)	2(2.8)	10(18.2)	12(6.7)
의지의 대상			2	1	0		0	2	0	
든든한 버팀목			0	0	10		0	0	10	
양가감정 (친밀/짜증/피곤)			5(10.0)	9(12.3)	14(25.5)	28(15.7)	8(15.4)	5(7.0)	6(10.9)	19(10.7)
기타			0(0.0)	5(6.8)	2(3.6)	7(3.9)	0(0.0)	4(5.6)	3(5.5)	7(3.9)
전체			50	73	55	178	52	71	55	178

모를 든든하게 생각할수록 부모화 경향성이 낮았다. 어머니에 대한 반응을 보면, 부모화 고집단은 어머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양가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가령 어머니에 대해서 친근함을 보고한 경우가 많으면서도 동시에 어렵고 적대적이라는 반응빈도도 높고 버팀목이라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였다.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 특성

부모화된 자녀를 가족관계 속에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부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표 4).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성격은 엄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상한, 사교적인 등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엄격하고, 다혈질적이며 무뚝뚝하다는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특성과 함께 자상한 성격도 함께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부모화 집단별로 살펴보면, 부모화

표 4. 부모화 수준별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 단위: 빈도 (㉠ 백분율

응답내용	대상 부모화	아버지의 성격				어머니의 성격			
		고(%)	중(%)	저(%)	전체(%)	고(%)	중(%)	저(%)	전체(%)
엄한		26(53.1)	37(52.9)	20(36.4)	83(48.3)	7(13.7)	6(8.5)	9(16.4)	22(12.4)
엄격		5	13	9		0	0	0	
다혈질/화/급한 성격		13	17	9		7	6	9	
무뚝뚝함		8	7	2		0	0	0	
강한						10(19.6)	15(21.1)	9(16.4)	34(19.1)
생활력강한						10	0	0	
강한 성격						0	15	0	
당차고 당당						0	0	9	
희생적인		1(2.0)			1(0.6)	13(25.4)	11(15.5)	10(18.2)	35(19.6)
성실/책임 있는		7(14.3)	13(18.6)	8(14.5)	28(16.3)				
자상한		3(6.1)	7(10.0)	12(21.8)	22(12.8)				
온화						9(17.6)	17(23.9)	7(12.7)	33(18.5)
사교적		2(4.1)	2(2.9)	10(18.2)	14(8.1)				
우유부단		2(4.1)	2(2.9)	0(0.0)	2(1.2)				
내성적/폐쇄적		1(2.0)	5(7.1)	0(0.0)	6(3.5)				
참견하는						4(7.8)	9(12.7)	0(0.0)	13(7.3)
여린						4(7.8)	5(7.0)	9(16.4)	18(10.1)
활발한						1(2.0)	6(8.5)	9(16.4)	16(8.9)
기타		7(14.3)	4(5.7)	5(9.1)	16(9.3)	3(5.9)	2(2.8)	2(3.6)	7(3.9)
전체		49	70	55	172	51	71	55	178

고집단 및 중집단의 아버지 성격이 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다혈질로 화를 잘 내는 급한 성격이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

반면 어머니의 성격으로는 희생적인, 강한, 온화한 그리고 엄한 성격이 주된 반응으로 전반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적이고 온화한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의 경우 강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강한 성격은 부모화 고집단에서 생활력이 강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중집단에서는 강한 성격으로 그리고 부모화 저집단에서는 당차고 당당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부모화 집단별로 보았을 때, 저집단에서는 참견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개입하는 정도가 부모화 고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 저집단의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해 활발하게 지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구 3. 부모화된 자녀의 상담사례연구

방 법

연구 대상

보고서를 작성한 181명의 학생 중 상담을 신청한 62(남:15, 여: 47)명의 학생들이 연구 3에 참가하였다. 62명의 학생 중 부모화 고집단은 24명으로 전체 부모화 고집단 52명중 46.2%, 부모화 중집단은 26명으로 부모화 중집단 74명중 35.1%, 부모화 저집단은 12명으로 전체 55명중 21.8%로, 상대적으로 부모화

고집단 학생들의 상담 신청 비율이 높았게 나타났다.

자료수집

부모화된 자녀들이 평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 시간은 1명당 50분씩 진행되었으며, 상담 도중 중요한 개념을 기록해놓고 상담이 끝난 후 그 개념을 근거로 연구자의 기억을 통해 상담내용을 기록하였다. 상담 분석은 상담 일지를 토대로 내담자의 이야기 중 반복적이고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응들 각각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비슷한 내용끼리 묶은 후 상위 개념을 도출하여 유형 분류를 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자 외 1명의 심리학 박사 계슈탈트 심리치료 전문가와 함께 이루어졌다. 상담 진행은 인터넷 상에 카페를 만들어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제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카페 안에 익명의 상담게시판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상담을 신청하고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주면서 진행되었다.

결 과

부모화된 자녀들이 가족 역동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이들의 행동, 언어 및 태도를 기록한 후 분석하였다(표 5).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들이 가족 내 역동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해본 결과 부모화 고집단의 자녀들은 강박적 배려자, 부모 욕구의

대리자, 책임자 및 지도자 그리고 부모의 보호자 및 위로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부모화 중집단의 자녀들은 강박적 배려자, 부모육구의 대리자 및 부모의 위로자 유형이 전체의 43%정도에서 나타났으나 나머지에겐 부모화 경향성은 있었으나 가족 내에서 특별히 고정된 역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화 저집단에서는 부모육구의 대리자

로 구분된 유형이 전체의 67%를 차지하여 매우 많은 수의 부모화 저집단 자녀들이 부모의 욕구를 내재화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강박적 배려자, 책임자, 보호자 및 위로자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피험자들의 고민을 살펴보면, 강박적 배려자의 경우, 소외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주

표 5. 부모화 수준에 따른 자녀의 가족 내 역할 단위: 빈도 (표 백분율)

가족 내 역할	부모화	고(%)	중(%)	저(%)	전체
강박적 배려자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매번 좋은 말만 한다 -나는 다 받아주었는데 그 애는 안 그러다(역올한). -배려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나도 배려를 받고 싶다 -싫으면 싫다하고 싶다.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았다. -사람들이 두렵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5(24.8)	2(7.7)	0(0)	7(11.3)
부모 육구의 대리자 -엄마가 공부를 집착하긴 하지만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를 계속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하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나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		3(12.5)	3(11.5)	8(66.7)	14(22.6)
책임자 및 지도자 -가난과 무겨움밖에 없다. 관계는 다 허무하다. -장녀로 내가 잘돼야 동생들도 잘되는데..걱정 된다 -동생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 다른 사람들을 꼭 가르치려고 해요 -부모를 도저히 어쩔 수 없고 구제불능이다.		8(33.3)	3(11.5)	0(0)	11(17.7)
엄마 혹은 아빠의 보호자 & 위로자 -아빠를 사회에서 무능력자라고 볼 것 같고.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만 고생한다. -아버지는 나를 연인처럼 생각한다.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8(33.3)	3(11.5)	0(0)	11(17.7)
기타		0(0)	15(57.7)	4(33.3)	19(30.6)
전체		24	26	12	62

위 반응에 대한 민감함, 자신감 부족, 열등감, 억울함 등으로 나타났다. 부모육구의 대리자인 경우, 열등감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으며, 완벽주의적 태도도 상당부분 드러났다. 책임자 및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녀인 경우, 통제적이고, 리더십이 있으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도덕적이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답답함, 어머니에 대한 불쌍함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위로자 역할을 하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답답함, 엄마에 대한 불쌍함/짜증, 죄의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 및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성정체감의 혼란을 고백한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반응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표현한 경우가 있어서 빈도 분석은 하지 않았다.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그들의 고민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강박적 배려자 유형에 속하는 학생 E

- 부모화 고집단

“성격을 고치고 싶다. 싫으면 싫다하고 싶다. 친구 중에 한명한테 화가 난다. 내가 다 받아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엔 내가 힘들어서 이야기했더니 받아주지 않더라. 속상했다. 억울했지만 아무소리 못했다. (‘왜 같이 다니냐?’는 질문에) 그 친구가 없으면 과에서 단짝 친구가 없다. 혼자 다니게 될까봐 겁난다... 난 개성이 없다. 개성 있는 성격이고 싶다. 수업시간에 나도 발표하고 싶다. 근데 못한다. 나선다고 할까봐 오버한다고 할까봐 못한다. 다른 사람이 화내고 비난하면 난 그냥 삼켜버린다. 비난받는다는 느낌에서 그냥 막 도망치듯이...”

부모 육구의 대리자 유형에 속하는 학생 F

- 부모화 고집단

“난 학벌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 공부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편입준비를 하고 있지만... 공부가 너무 안돼요. 요즘은 너무 아프고, 지쳤어요... 옛날에 사귀던 친구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았어요.”

책임자 및 지도자 유형에 속하는 학생 G

- 부모화 고집단

“저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냥 집안 걱정, 엄마걱정이 되니까 봐요(눈물을 흘리며).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주고 싶고, 동생도 공부시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요. 요즘은 오빠가 정신을 차려 줘 다행이에요”

부모의 위로자 및 중재자 유형에 속하는 H와 I - 부모화 고집단

“아빠가 집에서 살림하고, 엄마가 돈을 버는데. 난 그것도 삶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특히 강조한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아빠가 유약한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서 아빠를 무능력자라고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고...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항상 그 생각뿐이에요”

“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웃어넘기는 버릇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할까봐 대항을 못하겠어요. 엄마는 내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지고 말어. 지는 게 이기는 거야’라고요. 작은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

각해요. 외동딸이라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더 맞추고 애쓰고 항상 양보하고 그래요.. 엄마가 우울증이 있고 아이 유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걸 갖고 있어서 그런지 엄마 기분이 항상 걱정돼요.”

그 밖에도 부모화 되지 않은 자녀들의 심리 및 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부모화 되지 않은 자녀들은 주로 진로문제(4명), 연주할 때 긴장되는 문제 등 자신감의 문제(4명), 가족문제(2명), 연하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고백을 해야 할 지(1명), 성 정체감의 혼미(1명)의 문제로 고민 상담을 하였다. 상담 내용장면에서 이들은 개인의 진로 문제 및 자신의 자신감 문제를 다루면서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및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많이 드러냈다. 반면, 이들 중에는 부모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분노감을 보인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 저집단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경우 이외에도 부모의 욕구를 내재화하여 그러한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착각하여 충족하려는 경우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여 이에 저항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타인 및 부모에 대해 배려 중심적으로 사는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 및 행동 특성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구 1에서는 부모화 정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화의 특성이 가족 갈등과 갖는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연구 2와 3에서는 보고서와 상담을 통

해 부모화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은 부모를 위해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부모를 더 많이 걱정하고, 배려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화된 자녀들은 주로, 가족에서 중재자, 위로자, 보호자, 배려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욕구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모화된 자녀들이 가족갈등 및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의 갈등여부에 따른 부모화 자녀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화 집단일수록 갈등가족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족원의 질병, 사망, 별거, 이혼, 갈등 등의 가족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집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부모화 특성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안의 위기 및 외상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의 역동이 자녀의 부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자녀가 어느 시기에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위험정도도 다를 것이다. 즉, 자녀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이혼을 경험하는 엄마의 우울함이 자녀의 위로행위를 촉진할 수 있으며, 부모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위를 매우 어린 나이에 발달시킬수록 어린 아이로서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일찍부터 포기하고, 억압해야하는 데 따른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부모화된 자녀의 자아분화 및 삼각화 연구 결과, 부모화 고집단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보고한 경우가 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오히려 어머니와의 밀착을 이끌어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동기화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모화 고집단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측은감에 대한 반응 빈도가 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를 어리석거나 나약하게 보는 성인화된 자녀의 관점이 반영된 듯하다. 한편, 부모화 저집단의 자녀들은 부모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부모의 든든함이 부모화와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든든하게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오히려 그들이 부모를 보호하는 역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Byng-Hall(2002)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 밖에도 부모화 고집단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을 많이 보고하였다.

부모의 특성에 따른 자녀의 자아분화 및 삼각화를 알아본 결과,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아버지의 특성을 더욱 엄하고, 다혈질적이며 무뚝뚝하다고 반응한 것으로 보아 부모화 특성이 아버지에게 대한 무서움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머니의 성격으로는 전반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적인, 온화하며 강하다는 특성이 부각된 가운데, 부모화 고집단에서는 어머니에 대해 생활력이 강하다, 중집단에서는 강한 성격이다, 그리고 부모화 저집단에서는 당차고 당당하다고 표현했다. 이는 어머니가 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 더 희생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녀는 더욱 부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희생적이면서 생활력이 강할 때 자

녀는 부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아버지가 무섭고, 다혈질적이어서 식구들을 갑작스럽게 위협한다면, 어머니와 자녀는 밀착되기 쉽고,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지지 및 힘을 얻어내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연합된 자녀는 부모화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하거나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기 쉽다.

가족 내 역동 속에서 자녀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해본 결과 부모화 고집단의 자녀들은 강박적 배려자, 부모 욕구의 대리자, 책임자 및 지도자 그리고 부모의 보호자 및 위로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배려자로서, 부모 욕구의 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위로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길으로 보기에 적응적이라 자녀의 이러한 행동은 부모 및 가족원으로부터 긍정적인 강화를 받아 지속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 마지못해 취해진 성격일 때 부모화된 자녀의 내적 정신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화된 자녀들은 왜 타인을 보살피고 양보하는 행동을 계속할까? 양보 행위가 가족의 위기, 갈등 및 불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가족 갈등이 발생하면, 가족원 중 가장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보통은 부모가 이를 담당한다. 그러나 갈등이 부모로부터 발생했거나 부모가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경우, 자녀가 이를 대신 감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자녀는 가족의 일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영웅으로서, 희생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패턴은 가족의 암묵적인 역할기대에 의해 계속해서 반복되기 쉽고

자동화되어 하나의 관계 패턴으로 고착되기 쉽다. 안타깝게도 부모화된 자녀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착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져서 강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기 쉽다. 그러므로 부모화된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심지어는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도 있다.

물론 남을 배려하고 주변을 살피는 능력은 장려되어야 할 좋은 덕목 중의 하나이나 자신의 욕구는 무시한 채 강박적으로 타인의 욕구를 맞추는 데에만 집착할 때 이는 심리적 병리현상(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 강박적 배려자의 경우, 소외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열등감을 호소하였으며, 책임자의 경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호소하였다)을 야기 시킬 수 있다(Bowlby, 1977).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은 부모화된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부모화가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인관계 및 가족체계와 관련되므로 부모화된 자녀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속한 가족 체계를 이해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행동이 배려적이고 사회적이고 적응적이어서 그 동안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여 이들이 심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및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이들에 대한 도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 및 보고서를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부모화된 자녀들의 총체적 모습을 탐색했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1회에 한

해 실시되어 피험자가 숨기고 싶었던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부모화된 자녀들이 그러한 행동 특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두려움 및 부가적 이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적 관점에서의 부모화 연구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부모화가 인간의 사회 적응에 미치는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화 발달을 비롯하여, 인간의 탈부모화 노력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경동 (1964). 태도척도에 의한 유교가치관의 측정, 한국사회학, 1, 3-24.
- 김혜숙 (2004).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학지사.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발달 단계로서의 '절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유승엽, 장민호 (1998).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 원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 '98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격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65-82.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lack, C. (1979).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4(1), 23-27.
-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Basic Book, New York.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ampbell, E., Adams, G. R., & Dobson, W. R.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509-525.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D. Chase(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3-33.
- Cole, P., & Woolger, C. (1989). Incest survivors: The rela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and their own parenting attitudes. *Child Abuse and Neglect*, 13, 409-416.
- Copans, S. (1989). The invisible family member: Children in families with alcohol abuse. In L. Combrinck-Graham(Ed.), *Children in family contexts: Perspectives on treatment*, 277-298.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rber, B., & Jenne, W. C. (1963). Family organiz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and siblings of a retarded chil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7). 3-78.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Gath, A. (1973). The school-age siblings of mong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3, 161-167.
- Gath, A., & Gumley, D. (1987). Retarded children and their sibling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5), 715-730.

- Goglia, L. R., Jurkovic, G. J., Burt, A. M., & Burge-Callaway, K. G. (1992). Generational boundary distortions by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hild-as-parent and child-as-mat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91-299.
- Jacobvitz, D., & Sroufe, L. A. (1987). The early care-giver child relationship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in kindergarten: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8, 1496-1504.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Jessee, E. H., & Goglia, L. R. (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302-314.
- Jurkovic, G. J., Thirkei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Lamorey, S. (1999). Parentification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 In Chase, N. 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75-91. Sage.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eroff, A., & Chadler, M. (1975). Reproductive risk and the continuum of caretaking causality. In F. Horowitz(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4, 187-2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ssions, M., & Jurkovic, G. J. (1986).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1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Turnbull, A. P., Summers, J. A., & Brotherson, M. J.(1984). *Working with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A family systems approach*.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Kansas University Affiliated Facility.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 원고접수일 : 2005.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0. 14
게재결정일 : 2005. 11. 5

Individual and Family-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entified Children: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Self-Report and Counseling

Eun-young Cho

Tae 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fied children at individual and family-related levels using a variety of methods. In Study 1, a total of 270 Korean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Adult and pictured their genealogical chart. Study 2 examined the parentified children'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filial loyalty, and self-differentiation based on their narratives. In Study 3, 62 students were subject to counseling to explore what roles parentified children assumed within their family contexts. The results suggest that highly parentified children tend to engage more frequently in their family conflicts. Also, parentified children show more filial loyalty to and less self-differentiation from their parents. Finally, parentified children are more inclined to take a role of compulsive care-giver, responsible person, manager, and comforter. These findings imply that parentified children may be at more serious psychopathological risks, suggesting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s be tailored to parentified children.

Key words : *parentification, filial loyalty, self differentiation, triangulation, family conflict.*